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3호 THE UNITED / 발행일 2025년 04월 13일 / 등록번호 영등포라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소-발행소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유희팩카드빌딩 18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5.04.13 / 제3호

MATCH PREVIEW

충북청주 상대로 리그 1위 도전한다
평창 펴고 상승세를 이어간다
천안 펴고 승점 확보 나선다

BLUEMAN INTERVIEW

‘측면에서 중원으로’ 민경현,
“기복 없는 선수가 되고 싶다”

ROOKIE INTERVIEW

‘프로데뷔 시즌 주전’ 박경섭,
“여기서 안주하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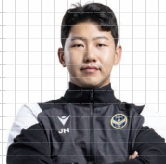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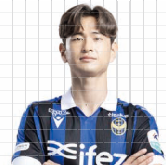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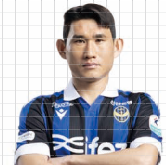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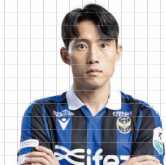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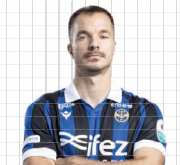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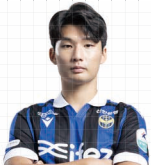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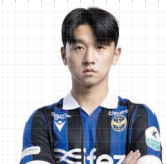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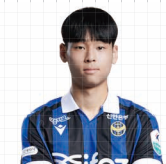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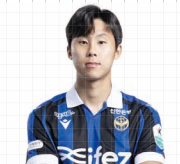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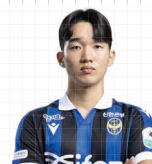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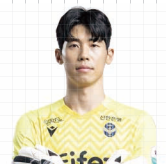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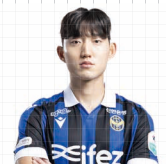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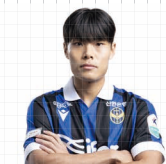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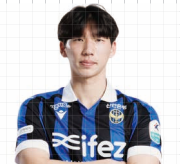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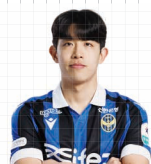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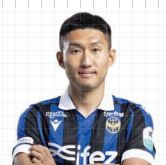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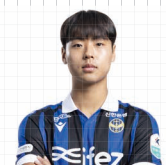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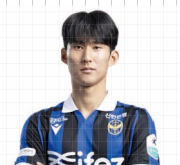
UTD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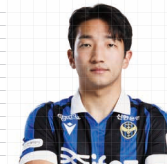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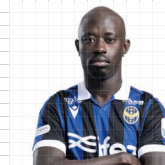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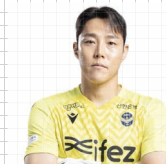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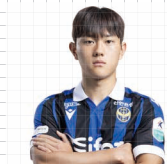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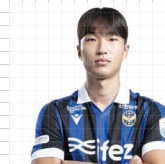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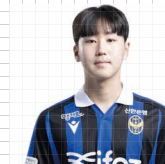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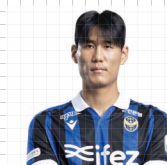
인천의 ‘K리그2 경력직’을 소개합니다





INCHEON UNITED 2025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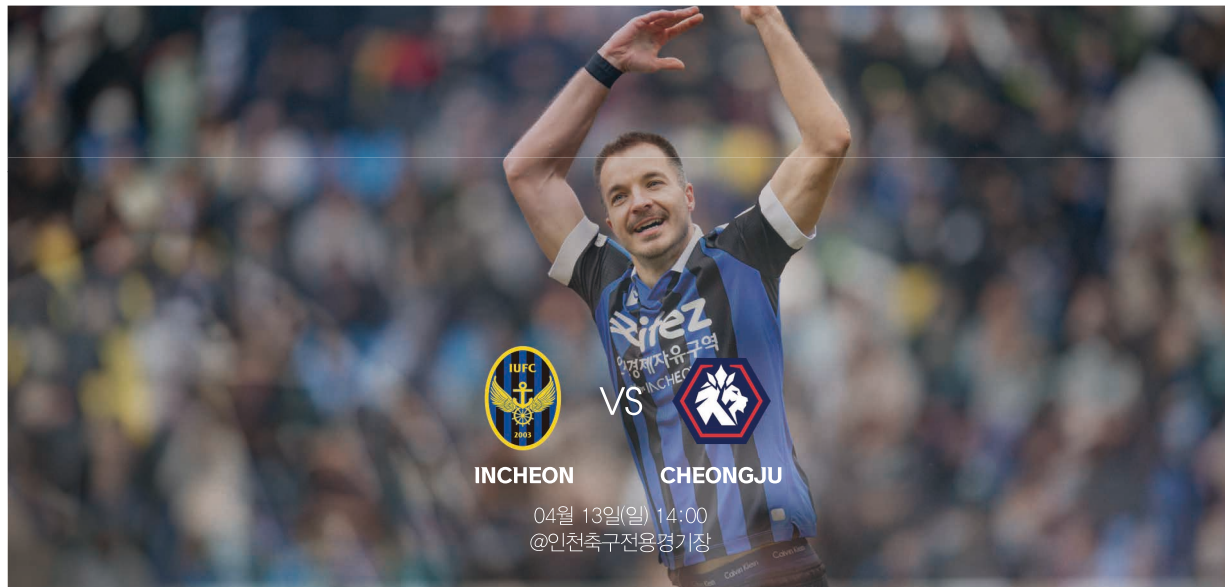
 윤정환 감독 HEAD COACH	 이호 수석코치 COACH	 아벨 코치 COACH	 정혁 코치 COACH
 김정훈 수석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진영 통역 INTERPRETER
 오승기 통역 INTERPRET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혁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0 이동률 FORWARD		
 15 임형진 DEFENDER	 16 이가람 MIDFIELDER	 17 김성민 FORWARD	 18 백민규 FORWARD
 19 김민석 FORWARD	 20 델브리지 DEFENDER		
 24 강도욱 MIDFIELDER	 25 이범수 GOAL KEEPER	 27 김보섭 FORWARD	 28 민경현 DEFENDER
 29 강민성 FORWARD	 30 서동한 FORWARD		
 37 홍시후 DEFENDER	 39 김명순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50 박진홍 MIDFIELDER
 66 김세훈 MIDFIELDER	 77 박승호 FORWARD		

 권찬수 GK코치 GK COACH	 김용신 전력분석코치 PERFORMANCE COACH	 정문호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1 민성준 GOAL KEEPER	 3 이상기 DEFENDER	 4 김건희 DEFENDER
 11 제르소 FORWARD	 13 최승구 DEFENDER	 14 바로우 FORWARD
 21 황성민 GOAL KEEPER	 22 성희찬 FORWARD	 23 박경섭 DEFENDER
 31 이상현 GOAL KEEPER	 32 이주용 DEFENDER	 33 김현서 MIDFIELDER
 94 쇼타 FORWARD	 99 박호민 FORWARD	

2025 SCHEDULE

1R	02월 22일 (토) 14:00	2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2R	03월 01일 (토) 14:00	2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3R	03월 09일 (일) 16:30	2	성남 : 인천	1	탄천종합
4R	03월 15일 (토) 14:00	1	인천 : 서울E	0	인천축구전용
3R	03월 23일 (일) 14:00	3	인천 : 춘천시민	0	인천축구전용
5R	03월 29일 (토) 16:30	1	인천 : 부산	1	인천축구전용
6R	04월 05일 (토) 14:00	0	화성 : 인천	1	화성종합
7R	04월 13일 (일) 14:00		인천 : 충북청주		인천축구전용
3R	04월 16일 (수) 19:00		인천 : 평창		인천축구전용
8R	04월 19일 (토) 14:00		인천 : 천안		인천축구전용
9R	04월 26일 (토) 16:30		부천 : 인천		부천종합
10R	05월 04일 (일) 16:30		인천 : 김포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10일 (토) 19:00		충남아산 : 인천		아산이소신
12R	05월 18일 (일) 16:30		안산 : 인천		안산와~
13R	05월 25일 (일) 16:30		인천 : 전남		인천축구전용
14R	06월 01일 (일) 19:00		천안 : 인천		천안종합
15R	06월 08일 (일) 19:00		인천 : 부천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15일 (일) 19:00		수원 : 인천		수원월드컵
17R	06월 21일 (토) 19:00		인천 : 화성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29일 (일) 19:00		김포 : 인천		김포솔터
19R	07월 05일 (토) 19: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20R	07월 13일 (일) 19:00		인천 : 충남아산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20일 (일) 19:00		경남 : 인천		창원축구센터
22R	07월 27일 (일) 19:00		인천 : 안산		인천축구전용
23R	08월 02일 (토) 19:00		서울E : 인천		목동종합
24R	08월 09일 (토) 19:00		부산 : 인천		구덕운동장
25R	08월 16일 (토) 19:00		인천 : 성남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24일 (일) 19:00		충북청주 : 인천		청주종합
27R	08월 30일 (토) 19:00		인천 : 충남아산		인천축구전용
28R	09월 07일 (일) 19:00		부천 : 인천		부천종합
29R	09월 13일 (토) 19:00		천안 : 인천		천안종합
30R	09월 20일 (토) 19:00		인천 : 김포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8일 (일) 19:00		서울E : 인천		목동종합
32R	10월 04일 (토) 16:30		화성 : 인천		화성종합
33R	10월 08일 (수) 14: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34R	10월 12일 (일) 16:30		성남 : 인천		탄천종합
35R	10월 19일 (일) 14:00		안산 : 인천		안산와~
36R	10월 26일 (일) 14:00		인천 : 경남		인천축구전용
37R	11월 02일 (일) 14:00		인천 : 부산		인천축구전용
38R	11월 08일 (토) 14:00		전남 : 인천		광양축구전용
39R	11월 23일 (일) 14:00		인천 : 충북청주		인천축구전용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컵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변경 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CHEONGJU PREVIEW

‘안방불패’ 인천, 충북청주 상대로 리그 1위 도전한다

글 = 한휘연 UTD기자 (by_xayah@naver.com)

2025년 홈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가 4월 중순 홈에서 잇따라 펼쳐지는 세 경기서 기록 연장에 나선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충북 청주프로축구단을 상대로 ‘하나는행 K리그 2025’ 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이는 양 팀의 리그 첫 맞대결이다.

개막 후 승격을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인천은 4승 1무 1패 리그 2위로 순항 중이다. 올 시즌 첫 원정이었던 4라운드 성남FC전 외에는 꾸준히 승점을 확보하며 승격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공격진에서는 지난해 K리그1에서 득점왕에 올랐던 무고사가 올 시즌에도 리그 6경기 4득점 1도움으로 득점왕 경쟁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매 경기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제르소와 바로우 외에도 부상 전까지 쏠쏠한 결승골을 기록했던 김성민, 컵 대회 첫 경기 두 차례 헤딩골의 주인공 박호민까지 인천의 공격수들은 자타공인 입증됐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결정력이다. 유정환 감독은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 골 결정력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리그 경기당 평균 11.83개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기당 평균 득점은 1.33에 그치고 있는 인천이다. 같은 승점이지만 다득점에 밀려 2위에 자리한 지금 화려한 공격진의 이름에 비해 조금은 아쉬운 결정력을 이 경기서 떨쳐내야 한다.

한편 충북청주는 지난해 36경기 8승 16무 12패(승점 40)로 2024 하나는

행 K리그2 10위에 올랐다. 시즌 중 권오규 감독대행이 올 시즌을 앞두고 정식 감독으로 부임하며 선수단의 면면이 대거 바뀌었다. ‘피라냐 축구’를 내세우며 브라질 출신 공격수 가브리엘-마테우장요-페드로 3인 외에도 인천 출신 지연학 등을 영입해 전력을 두루 보강했다. 그러나 충북청주의 올 시즌 초반도 녹록지 않은 않다. 리그 6경기 1승 1무 4패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거기에 충북청주는 지난 3월 22일 열린 2025 하나는행 코리아컵 2라운드에서 K3리그 대전코레일FC에게 일격을 맞아 탈락했다. 컵 대회를 포함하면 3연패인 셈이다. 그러나 아직 시즌 초반부인 만큼 분위기 쇄신을 노리며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찾아올 충북청주이기에 방심은 금물이다.

인천 유정환 감독과 충북청주 권오규 감독 모두 리그 경기서 4-4-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무고사가 최전방 한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인천과 달리, 충북청주는 주득점자인 가브리엘이 최전방과 2선을 오가는 형태다. 3골 1도움으로 무고사 뒤를 쫓아 득점왕 경쟁에 가세한 가브리엘을 성남과 함께 리그 최소 실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 수비진이 틀어막는 것이 이 경기의 주요 과제다.

통산 전적이 없는 상대를 만나는 만큼,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속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모습을 감안한다면, 인천이 전력상 우위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 거기에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홈에서 충북청주를 만나는 것 역시 인천에게는 호재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다. 다 이력트 승격을 위한 리그 1위 수성을 위해서는 홈에서 기본 좋은 승리를 거둬야 한다.



vs PYEONGCHANG PREVIEW

‘춘천전 대승’ 인천, 평창 뛰고 코리아컵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

글 = 이지우 UTD기자 (jw2000804@naver.com)

리그에서 숨가쁜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은 16일에 코리아컵에서 평창유나이티드를 상대하면서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코리아컵 2라운드 당시 춘천시민축구단에게 3-0 완승을 거둔 인천은 자신감을 얻고 평창과의 경기에 임할 예정이다.

평창은 현재 K4리그 소속으로, 규모는 작은 팀이지만 리그에서 꾸준히 중상위권의 성적을 냈다. 올해 리그에서는 비록 무승부가 많은 편이지만, 꾸준히 패배하지 않고 승점을 쌓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코리아컵에서는 2라운드에 프로 구단인 경남FC를 3-0으로 꺾는 이번까지 일으켰다. 객관적인 전력은 인천보다 열세지만, 매서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새 시즌을 앞두고 평창은 화제의 팀으로 꼽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데뷔하여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수비수 황문기가 보충역으로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창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황문기 외에도 이병욱, 정성준 등 프로 무대를 경험했던 선수들이 평창에 합류하면서 과거보다 한층 강한 전력을 보유하게 됐다.

평창의 핵심 선수로는 당연히 황문기를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인천에서 활약하며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강윤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핵심 멤버 박요한 등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다만, 이번 코리아컵 경기는 주중에 열리기 때문에 일부 주요 선수의 출전은 불투명하다. 대회 규정상 보충역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선수들은 평일 경기 출전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문기, 강윤규 등 주요 선수들이 빠지는 만큼, 평창 입장에서는 악재가 많은 경기 일정이다.

평창은 리그에서 4-3-3 포메이션을 자주 사용했고, 경남과의 경기는 3-4-3 포메이션을 선택했다. 역습이 날카롭고, 공격 자원의 발재간이 꽤 위협적이기에 상대의 속공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양평FC에서 뛰다가 다시 평창으로 복귀한 정성준은 친정팀 경남을 상대로 경기 시작 2분 만에 득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여주는 중이다. 공격으로 전환할 때 빠르고 긴 패스로 전개하는 팀이므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편, 인천은 지난 코리아컵에서 대구로 로테이션을 선택하면서도 3-0 대승을 거두며 좋은 기억을 남겼다. 일정상 이번 평창과의 경기도 인천은 새로운 얼굴들을 명단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소중한 기회인 만큼, 출전 기회가 찾아온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펼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춘천전의 박호민처럼 짧은 시간 속에서도 확실한 인상을 남긴다면, 장기 레이스인 리그에서도 중요한 옵션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인천은 평창과의 경기를 통해 승리와 후보 선수들의 기량 점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이어갈 전망이다.



vs CHEONAN PREVIEW

인천, 홈 3연전 마지막서 천안 꺾고 승점 확보 나선다

글 = 한휘연 UTD기자 (by_xayah@naver.com)

‘다시 우리의 자리로(Return to the Classic)’. K리그2 선두로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는 인천유나이티드는 4월 19일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천안시티FC를 만난다.

인천은 오랜만에 ‘지략가’로 통하는 김태완 감독과 K리그2에서 재회한다. 천안 김태완 감독은 오랜 시간 K리그에서 상무 지도자로서 자리하며 인천과 여러 차례 만난 바 있다. 마지막 만남은 ‘2022 하나원큐 K리그1’ 22라운드 원정경기로, 당시 후반 9분 터진 김보섭의 결승 골로 인천이 1-0 승리를 거뒀다. 천안과의 만남은 처음이지만, 마냥 미지의 상대만은 아닌 이유다.

이제 프로 3년 차를 맞이한 천안은 리그 6경기 1승 5패로 올 시즌 험난한 초반을 보내고 있다. 천안은 전남과의 홈 개막전서 이용희가, 부천과의 경기서 이지훈이 연달아 퇴장을 당하며 2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3라운드 충남 아산과의 경기서는 후반 32분 터진 톤가라의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며 승리했지만, 곧바로 부산에 패배했다. 5라운드 김포를 상대로는 또다시 문건호의 퇴장이 나왔다. 수적 열세의 상황에서 후반 28분, 톤가라가 PK를 실패하며 2연패, 6라운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는 후반 페널티킥을 내어주며 3연패에 빠졌다. 한 명이 없는 상황이 여러 경기 지속된 만큼, 천안은 6경기 평균 슈팅 6.5개에 머무르고 있다. 승점 1점이 아쉬운 상황에서 결정력까지 따라주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인천은 윤정환 감독 체제로 시작한 올 시즌, 개막전부터 박경섭-최승구 두 사람을 기용하며 수비진에 젊은 피를 수혈했다. 지난 3월 23일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춘천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는 U20 국가대표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2005년생 백민규를 선발로 내보내고, 같은 2005년생 이가람과 2006년생 소타가 교체로 출전해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며 팀의 두터운 선수층을 증명했다.

특히 컵 대회서 세트피스 상황 키퍼로 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민석이 다음 리그 경기인 5라운드 부산전서 교체 명단에 들고, 6라운드 화성전서 후반 교체 출전까지 이뤄냈다. 윤정환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선수의 컨디션, 상대 전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홈에서 잇따라 열리는 경기, 마지막인 천안전의 명단 역시 앞선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일 발표한 ‘하나은행 K리그 2025 경기 선수등록 마감 결과’에 따르면 천안은 K리그2에서 가장 높은 평균 연령(27.7세)을 기록했다. 김태완 감독도 시즌 전 미디어데이에서 경험 많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경섭, 최승구를 비롯해 올 시즌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천의 수비진이 천안의 경험에 어떻게 맞설지도 이 경기 관전 포인트다.

홈에서 열린 모든 경기서 뱃고동을 울리고 있는 인천이 4월 셋째 주 홈 3연전 마지막서 천안을 만나 리그 선두에 자리 잡고자 한다.



‘측면에서 중원으로’ 민경현, 어느 자리에서나 기복 없는 선수가 되고 싶다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지난 시즌 윤정환 감독은 강원FC를 K리그 2위에 올려놓으며 K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다. 강원이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정환 감독이 시도한 포지션 변화가 있었다. 선수들의 포지션을 조정해 팀의 시너지를 살리고, 선수 개개인의 활약을 크게 향상했다. 올해 윤정환 감독의 지도 방식은 인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포지션 변경의 첫 번째 주인공은 민경현이다. UTD기자단은 측면 수비수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역할을 바꾼 민경현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측면 수비수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Q. 인터뷰에 앞서 요즘 몸 상태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동계훈련부터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몸 상태는 좋다. 코치님들이 짜주신 프로그램에 맞춰 훈련하다 보니 컨디션은 괜찮다. 다양하 아픈 곳도 없다.

Q. 인터뷰 날짜 기준(5라운드), 인천은 3승 1무 1패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시즌 초반 흐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반을 돌아보면, 성남FC에게 진 경기가 아쉽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순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우리가 목표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경기가 더 중요하다. 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다.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나 잘한 점을 공유하면서 지내고 있다.

Q. 측면 수비수가 주 포지션이지만, 올해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고 있다. 언제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나?

동계훈련부터 중앙 미드필더로 뛰기 시작했다. 연습 경기에서 윤정환 감독님께서 미드필더로 뛰어보라고 하셨다. 그때를 기점으로 중앙 미드필더로 될 준비를 조금씩 해왔다.

Q. 4라운드 서울이랜드전에서 처음으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그 경기가 끝나고, 구단에서 <미드필더로 포변한 민경현은 새로운 영입과 같다>라는 제목의 민경현 하이라이트 영상을 업로드했다. 혹시 그 영상을 보았는가?

구단에서 올린 영상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았다. 이랜드전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첫 번째 경기였다. 개인적으로도 첫 경기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영상이 올라오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동시에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감사함과 부담감이 공존했다.

Q. 풀백으로 뛸 때와 중앙 미드필더로 뛸 때, 어떤 차이를 느끼는가?
전술적으로는 매우 다르다.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다. 차이가 커서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그러한 차이점에 신경을 계속 썼다. 중앙 미드필더에 적응하기 위해 미드필더 형들에게 많이 물어봤다. 감독님, 코치님들도 세세하게 잘 알려주셨다. 미드필더로 경기에 나가면, 내가 뛸 포지션에 관해서만 생각하려고 한다. 영상도 많이 보면서 경기를 준비한다.

Q. 프로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것이 올해가 처음이다. 새로운 포지션이 힘들거나 어색하지는 않은가?

측면 수비수로 나올 때보다 뛰어야 할 양이 늘어서 힘들기는 하다. 중앙 미드필더는 계속 경기 상황을 읽고, 조율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새로운 포지션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Q. 중원에서 이명주 선수와 호흡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명주 선수가 어떤 조언을 해주는가?

(이)명주 형이 팀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신다. 특히 수비 상황에 조언을 많이 해 주신다. 상대가 공을 잡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명주 형 이야기대로 수행하면 좋은 플레이가 나온다. 명주 형의 도움이 내게 큰 힘이 된다.

Q. 이호, 정혁 등 현역 시절에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한 코치가 팀에 많다. 미드필더 출신 코치진의 훈련과 조언은 어떤가?

감독님, 코치님들의 조언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코치님들도 수비에 관해 말씀을 많이 해 주신다. 특히 세컨드 볼 상황을 강조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 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다. 팀 조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훈련에서도 다 같이 조직적으로 뛸 방법을 잘 알려주신다.

Q. 윤정환 감독이 인터뷰에서 민경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주 포지션인 풀백도 겸임한다고 이야기했다. 측면 수비수로 뛸 준비도 계속하고 있는가?

원래 포지션인 측면 수비수로 나설 준비도 꾸준히 하고 있다. 중앙 미드필더로 완전히 전환하기보다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측면이든 중원이든 어느 자리에서나 기록 없는 선수가 되고 싶다.



부드러운 안에 단단함이 있는 윤정환 감독님

Q. 윤정환 감독이 상당히 섬세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겪어본 윤정환 감독은 어떤 지도자인가?

윤정환 감독님은 부드럽지만 강한 감독님이다. 부드러운 안에 단단함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이 상당히 디테일하다. 포지션마다 어떤 위치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을지를 많이 알려주신다. 감독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더 좋은 장면들이 나온다.

Q. 윤정환 감독이 민경현 선수에게 주로 어떤 점을 요구하는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때는 수비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신다. 어떻게 수비해야 할지 세세하게 알려주신다. 쉽게 쉽게 하는 플레이를 요구하신다. 내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감독님께 감사하다.

Q.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 인천의 빌드업이 더 조직적으로 바뀌었다. 선수들이 느끼는 현재 인천의 축구는 어떠한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다. 상대 팀을 압도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이 되었다. 조직적인 플레이에서 그 점을 실감한다. 이 상황에서는 이 선수가 어느 위치에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 맞춰진 플레이가 있어서 경기할 때 더 편하다. 팬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인천의 빌드업이 짜임새 있어졌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다.

Q. 예전부터 기회가 나면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한다는 인상이 있다. 스스로 득점을 의식하고 있는가?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득점 기회가 있었다. 골을 넣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웠다. 솔직히 득점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득점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골을 넣는 상상도 해보기도 한다. 경기 중에 다른 선수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패스를 주는 것이 맞다. 그래도 득점 욕심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기회가 나면 계속 슈팅을 시도해보고 있다.

Q. K리그2에서 뛰는 것은 올 시즌이 처음이다. 1, 2부리그 간의 차이를 느끼는가?

K리그1과 K리그2 사이에 차이는 분명히 있다. K리그2 팀들은 굉장히 투쟁심이 넘친다. 간절함이 더 느껴진다. 우리도 더 투쟁심 있게, 더 빠르게 뛰어야 한다. 싸워주는 플라이도 필요하다. 이 점을 신경 써서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친구 같은 선배, 기록 없는 선수 되고파

Q. 프로 4년 차가 되었다. 프로 데뷔 당시와 비교했을 때 스스로 어떤 점이 발전한 것 같은가?

확실히 신인 시절보다는 더 여유 있는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세밀한 플레이가 늘었다. 상황에 따라 패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전보다 많이 신경 쓰고 있다. 프로에 막 데뷔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더 많이 생각하면서 뛴다. 프로에서 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기록 없는 선수가 되는 것이다. 또 지치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인드로 뛴다.

Q. 연차가 쌓이면서 팀에 후배 선수들도 많이 늘었다.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가 되고 싶은가?

동생들을 편하게 대해주고 싶다. 후배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다. 친구 같은 선배가 되고 싶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는 한다. 동시에 후배들의 요구도 귀담아듣는다. 서로 배울 점은 배우고, 알려줄 점은 알려준다.

Q. 프로 4년 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천에 입단한지도 4시즌 꽤다.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무엇인가?

2023/24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요코하마 F. 마리노스전 원정이다. 그 경기에 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경기장의 분위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인천이 그 경기에 승리했을 때의 감정이 지난 시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여러 경기가 있지만, 요코하마 원정이 가장 좋았다.

Q. 앞으로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는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다. 뒤에서 묵묵히 팀을 위해, 팬들을 위해 뛰는 선수로 기억돼 주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자기 역할 다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기록이 없는 선수, 포기하지 않는 선수로 팬들 기억에 남고 싶다. 이러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올 시즌의 목표는?

팀 목표는 당연히 승격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개인적인 목표도 승격이 첫 번째다.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메시지 부탁한다.

우리 인천 팬들이 진심으로 팀을 아껴 주시고, 선수 개개인을 사랑해 주신다고 느낀다. 팬들의 응원과 사랑에 감사하다. 매년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서 선수들을 응원해 주신다. 덕분에 경기장에서 한 발짝 더 뛸 힘이 생긴다. 팬들에게 항상 이기는 경기만 보여 드리고 싶다.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고 싶다. 팀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선수가 되겠다.





프로데뷔 시즌 주전 박경섭, 여기서 안주하고 싶지 않다

글 = 성의주UTD기자(sung.euju.shin@gmail.com)



불과 몇 달 전까지 대학생이었던 박경섭은 이제 인천유나이티드의 팬 이라면 모를 수 없는 수비진의 핵심이 되었다. 프로에 입단하자마자 개막전 선발 자리를 차지한 그는 2월과 3월에 있던 모든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박경섭 특유의 노련함과 침착함은 모두를 놀라게 했으나 여전히 '프로 4개월 차' 신인이기도 하다. 현재에 대한 적응도, 나아가 할 미래도 많은 박경섭을 UTD기자단에서 만나봤다.



프로 무대 입성 그리고 데뷔

Q. 개막하고 벌써 달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일주일에 한 번 경기가 있다 보니 상대를 대비하고 경기를 준비하다 보면 '벌써 내일이 경기 날이네' 할 때가 많다. 그럴 때 특히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

Q.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1학년 때부터 경기에 많이 뛰면서 비교적 자리를 빠르게 잡은 이력이 있다. 그래도 프로로서의 삶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신인으로서 보는 프로 무대는 어떤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장 안에서 무척 치열하다고 느꼈다. 공수 전환 같은 부분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상대 공격수들이 압박을 오는 상황도 굉장히 빨라서 그런 점에 놀라기도 했다.

Q. 놀랐다고 했지만 경기장에서는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다. 프로에서 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침착함이 눈에 띄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항상 빌드업 훈련을 했다. 특히 재학했던 선문대가 후방 빌드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팀이라 관련된 훈련을 많이 했다. 포지션이 수비수다 보니 밑에서 볼을 돌리다가 뺏기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 압박이 올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발전을 많이 했다. 그게 프로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Q. 대학 1학년 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2학년 때는 정말 기량이 만개해서 대학 4관왕을 달성했다. 왕중왕전 수비수까지 수상했는데, 정상에 섰던 대학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신인으로서 프로 생활을 하면서 적응이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다.
처음에 팀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어렵긴 했다. 지난 시즌에 강등을 경험하면서 팀이 많이 경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베테랑 형들도 많으니까 팀 분위기가 무겁거나 딱딱할까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훈련을 해보니 팀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했고, 소통도 유연하게 잘 되더라. 형들이 어린 후배들 의견도 잘 들어주셔서 무척 좋았다. 주장(이)명주 형이나 (신)진호 형, (김)도혁이 형, (이)주용이 형, (문)지환이 형 같은 베테랑 선배들이 먼저 말 걸어주고 섣뭉스 다기와 주셔서 동계 때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덕분에 감사했다. 제일 친한 친구인 (김)세훈이 같은 경우도 많이 도와줬다.



Q. 빠른 적응 덕분인지 좋은 평가를 받아 신인인데도 이례적으로 개막전 선발로 나서게 됐다. 경기 출전이나 입지에 대한 확신이 언제쯤 들기 시작했는지 궁금하다.

2차 동계에 갔을 때 경기를 뛰면 거의 베스트 멤버에 들었다. 그때부터 선발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몇 달 전까지 대학생이었던 내가 수비 포지션으로 개막전을 뛴다는 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개막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베스트 라인업 쪽에 계속 포함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기대를 하게 됐다.

Q. 데뷔 후에 축하를 정말 많이 받았을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축하가 있다면?

(문)지환이 형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데뷔전 승리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가족들도 좋아하셨을 것 같다) 부모님이 개막전을 보러 오셨는데 정말 좋아하셨다. 9살 차이 나는 형과 11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는데, 다들 축하한다고 말해줬다.



프로 4개월 차, 여전한 성장의 시기

Q. 벌써 입단하고 4개월이 지났다. 언제 가장 '프로선수가 됐다'는 실감이 드는가.

SNS에 팬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실감하고 있다. 훈련장 나갈 때도 가끔 팬분들이 오시는데, 경기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럴 때 정말 프로선수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난다.

Q.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실점이 가장 적은 팀 중 하나다. 수비수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실점이 크게 없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안주하고 싶지는 않다.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수비라인 컨트롤이나 경기 운영 같은 측면에서 아직 한참 부족한 것 같다. 스스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Q. 수비진이 전반적으로 젊어지면서 팬들의 기대가 높아졌고, 현재까지는 무난히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 보기에 포백의 조화는 좀 어떤가.

소통을 정말 많이 한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이)주용이 형이나 (김)건희 형한테도 많이 물어본다. 상대 공격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빌드업 할 때 서로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말도 자주 하는 편이다. 특히 수비라인 망형인 (이)주용이 형이 동생들을 정말 잘 챙겨주시면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도와주신다.

Q.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도자를 만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사령탑으로 온 윤정환 감독님은 선수로서 또 어떤 분 같은지 궁금하다.
선수 시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잘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감독님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선수 시점에서 접근해서 알려주시니까 좀 더 이해도 빠르고 도움이 많이 된다. 전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 신인의 시점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

를 해주신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개막전을 치르기 전에 저와 (최)승구에게 '너희는 상대가 데이터도 없고 잘 모를 거다. 그냥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신인으로서 빌드업을 하면서 경기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데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 관촬을 거다'고 독려해 주신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



'청춘을 바친 인천'과 함께 나아갈 길

Q. 이전 기록을 살펴보면 시즌에 한두 골씩은 득점했던 것 같다. 골 중볼 능력도 좋고, 볼도 잘 다루는 편인데, 올 시즌도 득점을 기대해 봐도 좋을까?

세트피스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 경기를 준비할 때 세트피스도 대비를 많이 한다. 경기 중에 보면 꼭 발이나 머리에 하나씩은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살려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다.

Q. 플레이적으로 롤모델이 있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맨체스터 시티의 후방 디아스 선수나 브라이튼의 루이스 덩크 선수들의 플레이를 많이 본다. 장점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서 롤모델로 삼아 참고하고 있다.

Q. 시즌 개인적인 목표는 19경기 출전이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선수 생활 전반적인 목표가 궁금하다.

모든 선수가 그렇듯 일단 국가대표가 되어서 태극마크를 달아보는 게 꿈인 것 같다.

Q. 인천 광성중에서 인천 대건고를 거쳐 인천유나이티드까지 입단하게 됐다. 본인에게 인천유나이티드란 어떤 의미인가.

학창시절 대부분을 인천에 있었고, 지금도 인천을 위해 뛰고 있기 때문에 '청춘을 인천에 바쳤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것 같다.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올해 입단해서 프로가 된 선수에게 너무 과분한 사랑과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매 경기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의 'K리그2 경력직'을 소개합니다

글=이환희UTD기자(hwanhee515@naver.com)

‘경력직’ 이미 업무 경력이 있는 신입직원 채용을 뜻하는 낱말이다.

인천은 새로운 무대인 K리그2를 제압하기 위해 김명순, 이주용 등 ‘K리그2 경력직’ 6명을 영입했다. K리그2 경험이 있는 기존 선수들도 있다. UTD기자가 단이 K리그2 경험이 있는 인천 선수들의 과거 활약을 알아봤다. (각 기록은 올 시즌 시작 전 K리그2 기록)



DF 김명순
(70경기 3골 9도움)

새 시즌을 앞둔 인천의 첫 영입은 2000년생 젊은 풀백 김명순이었다. 지난 두 시즌 동안 충북청주에서 K리그2 70경기에 출전했다. 팀의 핵심으로서 2시즌 내내 풀타임으로 시즌을 소화했다. 지난 시즌에는 수비수임에도 3골 7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달성했다.



DF 이주용
(43경기 1골 5도움)

전북과 제주를 거친 이주용 역시 K리그2 경험이 있다. 군 복무 시절 아산 무궁화 소속으로 2017~2018 두 시즌에 걸쳐 K리그2 43경기에 나섰다. 1부에서도 통했던 수비 실력에 6개의 공격포인트는 덤이었다. 2018년 10월 전역 직후 아산 무궁화의 우승으로, 커리어에 K리그2 우승 경력을 추가했다.



FW 이동원
(95경기 17골 9도움)

3호 영입 이동원은 25세의 젊은 나이에도 K리그2에서 4시즌을 뛰었다. 2020시즌 제주에서, 2022~2024시즌 서울 이랜드에서 총 95경기에 출전했다. 특히 2020시즌에는 14경기 5골 3도움으로 K리그2 초대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했다. 제주에서의 다이렉트 승격 경험을 살려 올해는 인천의 10번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노린다.



GK 황성민
(136경기 28클린시트)

4번째 영입인 골키퍼 황성민은 베테랑답게 K리그2 경험이 풍부하다. 충주, 안산, 경남 3개 구단에 걸쳐 총 7시즌 동안 K리그2 공격수들을 상대했다. 프로무대 143경기 중 136경기를 K리그2에서 치렀다. 지난 코리아컵 2라운드, 홈팬들 앞에서 선방쇼를 펼치며 팀의 승리를 도왔다.



FW 박호민
(35경기 4골 1도움)

5번째 영입 박호민 역시 3년의 프로경력에서 나온 36경기 중 35경기가 K리그2였다. 부천 소속으로 35경기 4골 1도움으로 많은 공격포인트를 쌓지는 못했지만, 인천 데뷔전이었던 지난 코리아컵 2라운드에서 폭발했다. 전반 15분 만에 2골을 넣으며 잠재력을 보여줬다.



DF 이상기
(31경기 1골 1도움)

베테랑 풀백 이상기는 K리그2 31경기에 출전했다. 2021시즌 김천에서 3경기를, 2022시즌 광주에서 28경기를 뛰었다. 2부에서 출전한 경기가 많지는 않지만 광주에서 임팩트 있는 한 시즌을 보냈다. 주전으로 뛰며 팀의 다이렉트 승격에 공을 세운 경험이 있다.



MF 김도혁
(36경기 1골 1도움)

기존 선수단에서도 7명이 K리그2를 경험했다. 구단 최다 출장 기록을 갖고 있는 김도혁이 2014시즌 인천 입단으로 프로에 입성한 이후 다른 팀에서 뛰었던 것은 군 복무 시절 뿐이다. 2018~2019시즌 아산 무궁화 소속으로 36경기에 나섰다. 현재 인천의 주장 이명주, 부주장 이주용과 호흡을 맞추며 우승했다.



MF 이명주
(49경기 7골 6도움)

주장 이명주는 아산 무궁화 시절, 2018시즌 30경기 5골 5도움 활약으로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7년 전, 중동 무대를 휩쓸고 돌아와 K리그2를 평정했던 이명주는 이번 시즌에도 K리그2 최고의 미드필더다. 전성기보다 완숙한 경기력과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MF 문지환
(25경기 1골)



DF 김동민
(8경기 1도움)



FW 김보섭
(6경기)

문지환은 2017~2018시즌을 통틀어 성남에서 K리그2 18경기에 나왔고, 승격을 경험했다. 2021시즌 도중 임대하며 김천 소속으로 K리그2 7경기를 추가했다. 김동민과 김보섭은 임대 후 2021시즌, 김천 소속으로 K리그2 각각 8경기과 6경기에 출전하며 승격에 일조했다.



FW 김성민
(35경기 1골 2도움)

이번 시즌 벌써 2골을 넣은 김성민은 2023시즌 김포에서 임대 신분으로 한 시즌을 보냈다. 오른쪽 윙백으로 리그 31경기에 출전하며 주전으로 활약했고, 승강 플레이오프도 경험했다. K리그2 주전 자리를 차지할 만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다.



GK 이범수
(67경기 23클린시트)

골키퍼 이범수는 K리그2 4개의 구단에서 한 시즌씩 활약했다. 서울 이랜드(2015), 대전(2016), 경남(2017), 부천(2023)에서 총 67경기에 출전했다. 경남에서는 팀의 승격을 이끌었고, 그해 리그 베스트 11에 뽑혔다. 부상으로 시즌 초반 결장했지만 복귀를 앞두고 있다.



**변외
윤정환 감독**

한국에서는 처음이지만, 윤정환 감독 역시 2부리그 경험이 있다. 윤 감독의 프로 지도자 데뷔는 J2리그 사간 도스였다. 2009시즌 1군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해 2010시즌에는 감독대행을 맡았고, 2011시즌에 정식 감독으로 부임했다. 당시 38세의 젊은 감독이었지만 만년 하위권이었던 사간 도스를 2위까지 끌어올려 승격에 성공했다. 일본 프로팀 중 유일하게 클럽하우스가 없었을 정도로 여건이 나빴던 팀을 창단 첫 J1리그 무대로 이끌었다.

승격 이후에도 돌풍을 이어갔다. 당시 18구단 체제였던 J1리그에서 승격하자마자 2012시즌 5위를 기록했다. 2014시즌에는 8월까지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2020시즌, 체프 유니티드 부임으로 J2리그에 돌아왔다.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하위권에만 머물던 팀을 8위까지 올리는 성과가 있었다. 윤 감독은 인천에서 자신의 두 번째 승격에 도전한다.

승격에 도전하는 경험이 있든 없든 인천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모두가 합심해 팬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땀 흘릴 인천이다.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카카오TV·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IUFC TV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IUFC
BLUE MARKET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 경기 종료 30분 운영
온라인 블루마켓 WWW.INCHEONUTDMARKET.COM